

### 도난 성보 반환의 걸림돌 '선의취득'

최근 한 사립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아미타극락회상도'가 12년 전 도난당했던 장성 백양사의 후불탱화로 드러나면서 문화재에 대한 선의 취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백양사 성보박물관(관장 지산)은 6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불교미술박물관(관장 권대성)이 소유하고 있는 '아미타극락회상도'가 1994년 백양사에서 도난된 것으로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은 구입 당시 도난품인지 알지 못했라며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선의취득이란 민법 제249조의 "평은 공언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으로 보호되는 제도다. 원소유자의 소유권 보호보다는 거래의 원활한 유통이 사회적으로 이익이 크다는

들의 의식이 결집된 역사적 산물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특히 성보 문화재는 조성 목적이 신앙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순수한 매매품으로 거래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실제로 가법 조계종 현등사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3층석탑 사리함 일체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

취득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화재청이 2004년 12월 주최한 '문화재 도난 도굴 방지 대책 세미나'에서 주제 발제를 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경영국장은 "우리나라 동산문화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매장문

리당 의원이 6월 28일 문화재 거래 허가제, 선의취득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결과적으로 문화재의 경우는 금전적 가치로만 여기게 되고 도난, 도굴, 불법거래가 성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조차 민법의 선의취득 제도에 마혀 오히려 문화재의 거래를 장려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특히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하루 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 문화재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나라의 민족 문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성숙한 문화 의식과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절실하다.

김두석 기자

## "장물인지 몰랐다" ... 만병 통치약

### 도난 문화재 거래 근거로 악용...법 개정돼야 유통 촉진 등 사회적 이유 문화재에 적용은 무리

취득이 인정된다. 문화재의 경우도 구입 당시자가 장물인지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면 사실상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법의 맹점 때문에 문화재의 도난과 도난 문화재의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는 당대를 살아간 사람

송에서도 선의 취득 문제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삼성문화재단은 이 별칭 회장이 정당한 방법으로 선의취득했기에 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다른 재화와 달리 유통을 촉진하거나 거래를 원활히 할 필요가 없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선의

취득의 90% 이상이 도둑되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문화재의 도난, 절도가 심각한 상태"라며 "문화재에 한해서 선의취득제도를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인 문화재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도난을 줄이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관광위 노홍래 열린우



국회의원 불자모임 정각회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정기총회 및 조찬법회를 병행하는 모습.

### 정각회 이해봉 회장 선출...조계사서 법회



국회 정각회는 6월 30일 대웅전에서 '정기총회 및 조찬법회'를 열고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을 만장일치로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회장 인터뷰 14편 이날 총회에서는 또 열린우리당 강창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며, 간사장에는 열린우리당 이영호, 간사에는 열린우리당 최재성, 한나라당 정문현, 감사에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각각 뽑혔다.

글·사진=유철주 기자

### 진각종 총무부장에 회성 정사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은 6월 25일 통리원 총무부장에 회성(사진) 정사를 임명하는 등 5개 부처 부·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재무부장에는 지정(명선심인당 주교) 정사, 문화사회부장에는 호당(실상심인당 주교) 정사, 진각대 교

무처장에는 경일(최정심인당 주교) 정사가 각각 내정됐으며, 포교국장에는 정효(장지심인당 주교) 정사, 기획국장에 원암(관음심인당 주교) 정사가 임명됐다.

태고종 규정부장에 법경 스님 태고종 총무원(원장 운산)도 호법부장을 규정부장으로 개칭하고 6월 25일 신임 규정부장에 법경스님(연흥사 주지)을 임명했다. 김주필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스님 87명

### 2년동안 19명 증가, 화계사에 28명 최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스님은 몇 명이나 될까?'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가 6월 23일 집계한 조사보고서에는 현재 87명의 외국인 스님이 국내 사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조사때 68명 보다 19명이 증가한 것. 외국인 스님들은 승가교육, 선 수행, 외국인 노동자 포교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신국가별로는 스리랑카 스님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 11명, 미국과 네팔 각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스라엘 4명, 폴란드 4명, 타이완 4명, 러시아 3명, 인도 3

명, 헝가리·캐나다·중국·리투아니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 각 2명 등 총 28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사찰별로는 외국인 수행자들이 정진하는 국제선원이 있는 서울 화계사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화 연등국제불교회관이 11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남양주 보광사 9명, 서울 흥원사 5명, 부천 석왕사와 서울 승가사가 각 4명 순이었다.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은 "외국인 스님들의 체류종 애로점 등을 추가로 파악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봉영기자

## 중고생 대상 간화선 프로그램 생긴다

### 포교원, 여름방학이용 동국대서 강좌 후 '최종안'

조계종 포교원(원장 청화)이 준비 중인 대학생 및 중고생 대상 '간화선 수행프로그램'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올해 초 1차 교안을 완성해 관계자 워크숍을 거쳐 마지막 보완 및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 간화선 프로그램은 지난해 말 선보인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과 전체적인 목차 등 기본골격은 같다. 특히 이들이 쉽게 간화선을 이해할 있도록 대학 생활이 겪고 있는 취업이나 이성 문제 등과 관련된 예화(例話) 등을 제

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포교원은 현재 마련돼 있는 교안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여름방학 기간동안 동국대 계절학기 강좌를 통해 선보인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키로 하고 동국대 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올해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전국 대학에서 정기 커리큘럼으로 간화선 수행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고생 간화선 프로그램은 대학

생 프로그램보다도 간화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다양한 체험과 예화를 통해 인성과 집중력을 함양하는데도 초점을 두고 있다. 관건기사 18편 포교원은 대학생과 종교생 프로그램도 일반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주 1회 3시간 강의 기준으로 10~12주 동안 진행되도록 구성된다고 밝히고, 1박2일 또는 2박3일의 집중수행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 "제기된 의혹 사실과 달라" 조계종 문화사업단 조사결과

조계종 총무원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사업단)'에 대한 최근의 의혹제기와 관련해 6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입장을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6월 23일부터 4일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법륜스태이 예산 배정의 공정성 및 뇌물 수

수의혹 △산업지원센터 설계업체 변경 및 업체 선정과정 의혹 △불용 예산 전용 △인사의 공정성 △총무원 출장 시 대가성 급품 수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호법국장 경우 스님은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관계와 무관하거나 왜곡돼 있고 당사자와 종단에 어떠한 취재 확인 없이 추측과 소문, 일방적 제보에 의해 작성됐다"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명예를 손상하고 훼손한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지원센터 설계업체 변경 및 업체 선정과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설계공모에 당선된 고건축 설계전문업체 '이로재'로 주 계약업체가 변경된 과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금만 7억원인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노대행 발행·편집인·박혜림 편집국장·위영란 인쇄인·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다피아 www.budhopia.com  
 광고국 (02)2004-8213-7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수인은 부처님의 몸이요 진언은 부처님의 말이다

밀교에 밀(密)은 비밀스러움을 뜻하는데 중생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부처님만이 아시는 비밀한 법이라는 뜻에 기인한다.

이 밀(密)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신밀(身密), 구밀(口密), 의밀(意密)이다. 이를 함께 삼밀(三密)이라 하는데, 삼밀을 구유(具)하고 수행하면 실지(悉地)를 성취할 수 있고 큰 깨달음에 들어 삼명육통(三明六通)에 자재한 불보살이 된다.

삼밀 가운데 첫 번째인 신밀을 다른 말로 수인(手印)이라 하고 범어로는 무드라(mudra)이다. 두 번째는 구밀이라 하고 다른 말로 진언(眞言) 또는 다라니(darani)라고 부르며, 범어로는 만트라(mhanttra)라고 한다. 세 번째인 의밀(意密)은 참된 성품(性品)으로부터 나오는 삼미(三昧)의 형상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불보살님의 중생교화방편의 삼매를 상념으로 지어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소개하려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신밀과 구밀인 수인과 진언이다.

비로영우 스님 편저 / 사륙배판 / 382쪽 / 값20,000원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302호 TEL. (02)720-3211 FAX. (02)720-0312 http://www.hnp.co.kr

## 제2회 민족사 출판원고 공모

불교전문 출판사 민족사에서는 새로운 원고를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신한 원고를 공모합니다.

▶ 상금 ● 대상당선작 : 1편 1,000만원 ● 당선작 : 1편 500만원

**공모요강**

- ▶ 공모분야: 불교입문, 교리해설, 수행, 명상, 역사, 문화, 수필, 만화, 청소년, 아동 등 특정 분야에 관계없이 대중적 호응도가 높은 원고로 국내에서 출판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 (단 시, 소설, 학술서는 제외)
- ▶ 응모자격: 누구나 응모 가능함.
- ▶ 서술방법: 새로운 내용의 글로써 참신하고 진지하며 대중성이 있어야 함. 주제와 소재, 서술형식은 자유.
- ▶ 원고의 상태: 100% 완성된 원고.

**응모방법**

- ▶ 원고제출: 한글파일(hwp)로 작성하여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 이메일로 보낼 경우는 출력원고 1부를 별도로 제출요망. 기타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 요망.
- ▶ 원고매수: 200자 원고지 700매 이상(단 컷, 사진, 그림이 있는 경우는 매수와 상관없이 단행본 1권 분량이 되어야 함)
- ▶ 기 타: 원고 앞장에 제목(가제), 원고개요(원고매수 5~10매), 저자소개(이름, 나이, 성별, 전공, 저역서 등 구체적인 소개), 응모분야를 별도로 명기할 것. 저자소개는 필명으로도 가능함.(단 민족사에서 본명을 의뢰할 경우 밝혀야 함)
- ▶ 원고마감: 2006년 10월 30일까지
- ▶ 보내는곳: 110-858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810호 도서출판 민족사 ☎ (02)732-2404 홈페이지: minjoksa.org E-mail: minjoksa@chol.com
- ▶ 당선발표: 2006년 11월 넷째주 민족사 홈페이지에 발표 및 개별 연락.

**참고**

- 당선작은 민족사에서 출판을 원칙으로 함. 출판할 경우 상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인세를 지급함.
- 표절 또는 출판 후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선 취소와 함께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응모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민족사에서는 참신하고 대중적인 필자 발굴을 위해 연 1회 지속적으로 원고를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연력을 기다리겠습니다.